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235-241,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2.235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두피 · 모발에 대한 자가인식에 기반한 융합적 관리형태 연구

강수연[1], 이경아[2*]
[1]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2]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A study of convergence management types based on self-perception of scalp and hair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Su-Youn Kang[1], Kyoung-A Lee[2*]
[1]Dept. of Cosmetology, DongShin University
[2]Dept. of Cosmetology,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습관 및 자각증상을 인식함으로서 두피·모발의 융합관리 형태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미용전공 대학생 160명으로 직접 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두피유형은 복합성 두피가 많았으며, 모발의 문제점으로 모발 끝이 갈라지고 가늘어지는 것을 꼽았고 자신이 손상된 모발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손상의 원인으로는 잦은 염색과 퍼머라고 답하였으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모발 샴푸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피·모발에 대한 자각증상에서 두피에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을수록 자가인식도가 높았으며 나이와 수면시간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미용융합, 두피·모발 자가인식, 모발관리 습관, 두피관리, 샴푸방법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help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to have interests and manage the functional areas of scalp and hair by accurately identifying the condition of scalp and hair and realizing the convergence management habit and subjective symptoms for the condition.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160 beauty major college universities in their 20s living in the Jeonnam area by asking the subjects to directly write the answers. The study found that many subjects had combination type of scalps and hair problems of split ends and thin hair, and recognized that their hair was damaged. They answered that frequent dyeing and perm caused the damage and they were using the shampoo for damaged hair to prevent hair damage. Regarding the observable symptoms on scalp and hair, it was identified that self-perception was higher as the interest in scalp was high, which influenced age and sleeping time.

• **Key Words** : Beauty convergence, self-perception on scalp and hair, hair management habit, scalp management, shampooing method

*Corresponding Author : 이경아 (salon11@nate.com)
Received October 25, 2016 Revised November 26, 2016
Accepted February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현대인들에게 외적 아름다움은 젊은 여성들은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그러나 현대인의 인식 속에서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보여지는 부분의 화려함에 치중되어 있으며[2], 이는 미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지만, 두피와 모발을 손상시키는 필연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아름다운 모발은 인간의 개성과 외모적 자신감, 다양한 분위기 등을 연출해주는 미의 또 다른 요소가 되나, 두피·모발의 손상이나 심한 탈모의 경우 형태, 질감, 칼라의 변화를 통한 헤어스타일 연출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아름다운 모발은 건강한 두피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4].

현대사회에서 학업, 취직,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는 중년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탈모에 대한 시각을 바꿔 놓았으며, 탈모와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소아와 청소년을 비롯한 20대 젊은 사람들 또한 탈모인구로 편입되는 등[5] 탈모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경우 모발 및 두피관리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있어 기초 두피관리 과정부터 특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두피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탈모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의 증상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정확한 두피 상태를 모른 체[6]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중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홍보내용, 인터넷, TV 등 에서 정보를 주로 얻고 있어 과학적인 진단과 시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적 관심이 남다른 세대인 미용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발 및 두피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탈모 요인 자가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두피·모발관리 방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두피·모발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피·모발관리 인식에 따른 행동(현가영, 2015) [7], 전남 일부 지역 대학생들의 두피·모발 관리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장지연, 2011) [8], 대학생의 두피·모발관리 상태 및 생활습관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박희영, 2007) [9], 여대생들의 생활습관이 두피·모발 상태에 미치는 영향: 미용전공, 일반 전공 집단 간 차이점 중심으로(권용선, 2012) [10], 남자 대학생들의 두피 인식 및 관리형태(이설희, 2013) [11] 등 폭넓은 연구가 현재에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용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융합적 관리 방법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름다운 모발관리를 위해 두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두피·모발을 위한 샴푸, 트리트먼트 제품 사용 등 실생활에서 교정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제안하여 산업계와 사회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시각의 융합적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12] 두피·모발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에 거주하며 미용을 전공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180부를 배부하여 1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 및 누락된 4부를 제외한 15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1.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는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장지연[8], 오정선[13], 김관옥, 김성남[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4가지 영역(일반적 특성, 두피 모발 특성, 두피 모발 관리 습관, 두피모발 자가 인식 상태)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적 특성으로 6문항, 두피 모발 특성 4문항, 두피 모발 관리 습관에 관한 질문으로 13문항, 두피모발 자가 인식 상태 13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두피

모발 관리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두피모발 자가 인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자가 인식 상태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두피모발 자가 인식의 신뢰도 검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the results

	Individual question	Cronbach' s α
self-perception on scalp and hair	13	0.741

2.2 연구결과

2.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을 통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응답자의 72.5%가 20~22세에 집중되었으며, 미용 전공하는 학생의 94.2%가 여성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두피·모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균 수면시간은 34%가 5~6시간, 31.4%가 6~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85.3%가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69.2%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이어트 후 모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5.4%만이 모발의 변화가 있다고 답하여 다이어트와 모발의 변화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19 years old	4	2.6
	20 years old	38	24.4
	21 years old	37	23.7
	22 years old	38	24.4
	23 years old	31	19.9
	24 years old	8	5.1
Gender	Women	147	94.2
	Man	9	5.8
Hours of sleep	5 hour or below	30	19.2
	5~6 hour	53	34.0
	6~7 hour	49	31.4
	7~8 hour	15	9.6
	8 hour or more	9	5.8
Smoking	smoking	23	14.7
	non-smoking	133	85.3
Diet	yes	108	69.2
	no	48	30.8
Change of hair	yes	24	15.4
	no	132	84.6
Total		156	100.0

2.2.2 연구대상자의 두파·모발 특성

두피・모발관련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두피유형의 경우 22.4%가 복합성 두피라고 답하였으며, 지성 20.5%, 건성 18.6%, 중성 17.3%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정(2012)[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신의 두피 유형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9.6%를 차지하고 있어 오정선[13]의 약 5.8%를 차지했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일반 여대생들보다 미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두피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모발상태 문제에 61.5%가 끝이 갈라지고 가늘고 약하다고 답하였으며 3.2%의 내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감정을 억제하거나 우울, 강박,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로 신체화 증상으로 표현[16])보다 손상의 원인으로 73.7%의 잦은 염색과 퍼머, 16.7%가 드라이를 선택하여 물리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scalp and hai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Scalp type	dry	29	18.6
	oily	32	20.5
	combination	35	22.4
	sensitive	14	9.0
	dandruff	4	2.6
	normal	27	17.3
	unawareness	15	9.6
Hair condition	thin and weak	42	26.9
	split end	54	34.6
	thick and bristly	19	12.2
	soft and shine	18	11.5
	crumbliness	18	11.5
	oily scalp	5	3.2
Damage cause	too much coloring and permanent wave	115	73.7
	blow dry	26	16.7
	styling product	6	3.8
	ultraviolet protector	4	2.6
	stress	5	3.2
Total		156	100.0

2.2.3 두파·모발 관리 습관 및 상관관계

샴푸의 사전적 의미는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기름·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기 위한 세제의 일종 또는 이 세제로 머리를 감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샴푸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생에 필수적인 개념으로 이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샴푸 이후의 두피 관리 방법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4〉 Scalp and hair management habit

Classification		Frequency	%
Shampoo type	anti-dandruff	9	5.8
	shampoo containing rinse	21	13.5
	dry shampoo	10	6.4
	oily shampoo	13	8.3
	prevention of hair loss	7	4.5
	hair damage	67	42.9
	the rest	29	18.6
Shampoo time	morning	108	69.2
	before going to bed	31	19.9
	day in day out twice a day	14	9.0
	once in 2 days	2	1.3
	the rest	1	.6
Water temperature	cold water	1	.6
	lukewarm	87	55.8
	warm	56	35.9
	hot	5	3.2
	very hot	1	.6
	combination of warm and cold water	6	3.8
Shampoo purchasing place	market	97	62.2
	home shopping	32	20.5
	beauty shop	19	12.2
	cosmetics store	6	3.8
	the rest	2	1.3
Rinse	used	114	73.1
	sometimes	33	21.2
	not used	9	5.8
Hair dry	natural dry	22	14.1
	hot air dry	55	35.3
	cold air dry	7	4.5
	combination of hot and cold air dry	1	.6
	the rest	70	44.9
Total		156	100

<Table 4>를 보면, 미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샴푸는 42.9%가 손상모발용 샴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 할 만 한 것은 기타 의견으로 퍼퓸 샴푸를 18.6%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종래 샴푸의 기능이 모발의 세정이라고 봤을 때 퍼퓸 샴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연구대상자들이 샴푸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향을 토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자 하는 융합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샴푸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샴푸시간대를 알아본 결과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는 응답이 6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자기 전이 19.9% 순으로 아침에 머리를 감는 전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샴푸 시 물 온도는 55.8%가 미지근한 물로 35.9%가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전공자임에도 0.6%가 매우 뜨겁게, 3.2%가 뜨겁게 샴푸한다고 답하여 평소 잘못된 관리습관과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리습관은 오히려 두피건강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7]. 샴푸를 구입하는 곳은 62.2%가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샴푸 후 린스 사용에 관한 질문에 반드시 사용한다는 응답이 73.1%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샴푸 후 린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샴푸의 종류 중 손상모발용 제품을 사용한다는 답변을 봤을 때 모발 보호 차원에서 린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발 건조방법에 대한 질문에 미용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 및 두피관리를 위해 냉·온풍 드라이를 주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냉·온풍 드라이를 한다는 답변은 0.6%였고, 온풍 드라이를 한다는 답변은 35.3%로 나와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의 경우 온풍 드라이를 한다는 답변 46.3%, 냉・온풍 드라이를 겸한다는 답변이 24.8%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용 전공자와 비 전공자간의 드라이 관리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관리습관과 관련한 상관분석은 <Table 5>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샴푸의 종류와 헹굼의 횟수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r=.213, p<.01) 따라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첫째, 자신의 두피타입을 제대로 파악한다. 둘째, 두피·모발 상태에 맞는 샴푸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헹굼 횟수를 늘려 잔여 노폐물이 두피·모발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Table 5〉 Scalp and hair management habit of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Shampoo type	Shampoo time	Number of rinsing	Rinse	Water temperature	Hair dry
1	1					
2	.052	1				
3	.213**	.133	1			
4	.066	.094	-.070	1		
5	.093	-.016	.109	-.111	1	
6	.093	.108	.037	.015	.015	1

**p< 0.01

2.2.4 두파모발 자가 인식별 상관관계

자신의 두피모발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 방법 및 샴푸 선택, 관리 제품의 종류, 모발 관리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자가 인식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가인식하고 있는 두피·모발상태의 상관분석은 <Table 6>와 같다.

두피유형(r=.209)별 자가인식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피와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을수록 자가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r=-.189), 수면시간(r=-.159)과 관련된 자가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와 수면시간도 두피, 모발 자가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영주[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모발의 손상여부, 다이어트와 관련한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다이어트가 두피·모발의 자가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자의 설계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이어트와 관련 설문에 있어 다이어트의 횟수와 간격, 시간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Table 6〉 Self-perception on scalp and hair of correlation

	Age	Diet	Hair condition	Scalp type	Hours of sleep	Self perception
1	1					
2	.055	1				
3	-.065	-.123	1			
4	-.016	-.031	.032	1		
5	.084	-.056	-.030	.090	1	
6	-.189*	.096	.138	.209**	-.159*	1

*p< 0.05, **p< 0.01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두피·모발의 특성, 관리 습관, 자가 인식 상태 정도를 파악하고, 두피·모발 관리 실천 방법에 대한 방안과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미용전공 대학생 160명으로 직접 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하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두피·모발에 대한 자가인식에 기반한 융합적 관리형태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20~22세 연령대가 7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9.2%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34%가 5~6시간이고, 비흡연자가 85.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 두피·모발의 특성 중 연구대상자의 22.4%가 복합성 두피라고 답하였으며, 모발의 문제점은 61.5%가 모발 끝이 갈라지고 가늘고 약하다고 했으며, 모발 손상의 원인으로는 73.7%가 잦은 염색과 퍼머를 뽑았다.
3. 두피·모발 관리 습관은 손상모발용 샴푸를 42.9%가 주로 사용하였으며, 평소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오정선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샴푸는 62.2%가 할인마트에서 구매하였고, 샴푸 후 린스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73.1%로 높게 나타나 손상모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나 모발의 갈라짐이나 윤기, 손상예방을 위해 2차 관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샴푸의 종류와 헹굼의 횟수에 따라 두피·모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r=.213, p<.01) 따라서 두피·모발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두피·모발에 관련한 자각증상들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두피유형(r=.209)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모발이나 두피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그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 또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이(r=-.189), 수면시간(r=-.159)과 관련된 응답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피 나이가 들수록 모발의 성장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의미로 자가인식을 한 상태에서 두피 · 모발에 관심을 갖고 관리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피·모발관리의 자가인식은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여 모발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미용행위로 탈모예방의 전초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로 인식해야 하며,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여 다양한 매뉴얼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9].

위의 결과는 미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습관 및 자각증상을 인식함으로서 장식적인 기능의 두피·모발이 아닌 기능적인 영역을 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두피 상태를 알고, 다양한 시장변화를 이해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관리로 차별화된 융합 서비스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미용전공 대학생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향후 넓은 범위의 미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두피·모발 관리의 실천방법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 of Trichologists, “Scalp & Hair Management”, Koonja publishing company, p.5, 2013.

[2] Hyeong-Sim Gwak et al., “Scalp & Hair Management”, Cheonggu publishing company, pp.110-118, 2000.

[3] Young-Lan Moon, “Belief and attitudes of working people on scalp and hair”, Graduate School of Cyber Cosmetics Industry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4] Jeon-Jeong Ae, “A Study on Perception and State of Scalp & Hair Care among College Students in Beauty-Related Departments”,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5] Jung-Im Kim, “A Study on the State of Scalp & Hair Care”,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6] Gyeong -Ran Lee et al., “A Study on Awareness and State of Scalp & Hair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14, No. 4, pp.1244-1260, 2008.

[7] Ka-Young Hyu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Awareness on Scalp and Hair Ca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Honam University, 2015.

[8] Ji-Yeon Jang, “Correlation due to the Symptoms Recognized of the Scalp and Hair Care and Hair Lo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9, No. 2, pp.485-497, 2013.

[9] Hee-Young Park, “Effects of Scalp-care, Hair-care and Life Style on the Hair-loss among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7.

[10] Yong-Seun Kweon, “The Effect of College Women’s Daily Habits on the Condition of Scalp and Hair”, Graduate School of Arts of Hansung University 2012.

[11] Seol-Hee Lee,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Scalp Care and Behavioral Patterns in Male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of Hannam University 2013.

[12] Hae-Yong Jung, “The Study on Essential Competencies for University Students on consideration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and Major: Focusing on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19-32, 2015.

[13] Jeong-Sun Oh, “Awareness and Management concerning the Scalp & Hair Care in some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 12, No. 2,, pp.131-142, 2011.

[14] Kwan-Ok Kim, Sung-Nam Kim, “The Effects of Self Perceptin of Hair Loss Factors on Health Management and Scalp Hair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7, No. 2,, pp.50-60, 2011.

[15] Mi-Jung Kim, Sook-Hee Jung, Sun-Nyu Shim, “The research about Scalp treatments by self-recognition of adult’s losing hair.”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 Vol .3, No.3,, pp.21-27, 2012.

[16] Hae-Mi Kim, “The Effect of walking exercise on the improvement of housewives’s Self-esteem, Stress, Depression in term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12, pp.453-460, 2015.
[17] Hye-Jin Kwon et al., “Effects of Convergence Factors of Life Habitsand Skin Drynes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 Vol .14, No.3, pp.473-481, 2016.
[18] Yeong-Joo Lee, “Scalp Treatments Depending on Clinical Analysis of people with hair loss problems”, Graduate School of Beauty Arts of Soekyung University, 2007.
[19] Jung-Lan Lee et al., “Analysis and Forecast of the Domestic Market for Hair loss”,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 7, No. 1, pp.153-161, 2009.

저자소개

강 수 연(Su-Youn Kang) **[정회원]**

- 200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향장미용학 석사)
- 2014년 8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뷰티건강관리학과(보건학 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피부미용, 미용보건

이 경 아(Kyoung-A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미용학 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수료)
- 2016년 4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피부미용, 미용교육